

흥국생명 “최다 연승 가자” vs GS칼텍스 “우리가 막는다”



지난달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배구 여자부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가운데)이 중앙 후위 공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흥국생명은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일정 33%를 소화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5개 팀을 두 번씩 만나는 동안, 두 차례 폴 세트 점전을 펼치는 등 고비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늘 웃었다.

이제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최대 관심사는 '흥국생명 전승 우승 여부' 혹은 '흥국생명에 첫 패를 안길 팀'이다.

많은 전문가와 흥국생명 선수들이 꼽은 '가장 힘든 상대'는 GS칼텍스다.

공교롭게도 흥국생명이 대기록에 도전하는 순간, 네트 건너편에 GS칼텍스 선수들이 선다.

흥국생명은 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3라운드 첫 경기를 펼친다.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이 걸린 경기다.

흥국생명은 2019-2020시즌 마지막 4경기(2020년 2월 16일 한국도로공사전~2월 29일 IBK기업은행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올 시즌에는 10월 21일 GS칼텍스와의 경기부터 12월 2일 KGC 인삼공사전까지 10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이미 KGC인삼공사가 2007-2008시

V리그 여자부 최고 흥행카드

내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흥국생명 이기면 15연승 신기록

준에 세운 개막전 포함 최다 연승(2007년 12월 1일 흥국생명전~12월 25일 도로공사전 6연승) 기록을 넘어섰다.

이제는 '역대 최다 연승 기록'에 도전한다.

GS칼텍스는 2011년 1월 10일 도로공사전부터 3월 18일 도로공사전까지 1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흥국생명이 2일 GS칼텍스를 꺾으면, '15연승'의 신기록이 탄생한다.

11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해 흥국생명을 '최강'으로 만든 레프트 김연경은 "모든 경기가 어렵지만, GS칼텍스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다.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매년 다른 전술을 들고 코트에 선다. GS칼텍스도 1, 2라운드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경계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도 "2일 인삼공사전을 치르고, 이틀만 쉬고서 GS칼텍스와 만난다. 체력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11월 28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가 끝나고 흥국생명전을 대비했다. 6일을 쉬고 흥국생명전에 나선다.

정규리그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흥국생명을 GS칼텍스에 3-1, 3-2로 꺾었다.

10월 21일 첫 대결에서는 1, 2, 3세트에서 연거푸 듀스 점전을 펼쳤고, 11월 11일 2라운드에서는 폴세트 혈전에 마지막 5세트에서 듀스를 벌였다.

GS칼텍스가 '흥국생명 대항마'로 꼽히는 이유다.

9월 5일 프로배구 컵대회 결승전에서는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3-0으로 꺾고 우승하기도 했다.

흥국생명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는 "컵대회 GS칼텍스전 패배가 보약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맞대결에서 부담을 느끼는 건, '최강' 흥국생명이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흥국생명의 첫 패'에 주목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GS칼텍스는 메레타 러츠, 이소영, 강소휘로 이어지는 막강한 삼각 편대를 갖췄다. 2라운드에서는 강소휘가 빠진 상황에서도 흥국생명과 폴세트 점전을 펼쳤다.

이번 주말, 또 한 번 배구 팬들의 눈이 흥국생명과 GS칼텍스를 향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2년 연속 '올해 최고 선수·감독' 100인에



ESPN 'FC 100' 발표

포워드 톱10서 7위 랭크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사진)이 2년 연속 스포츠 전문매체 ESPN 선정 '올해 최고 선수·감독 100인'에 포함됐다. 지난해 잉여 부문에 뽑힌 손흥민은 올해에는 포워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ESPN은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2020년 연말을 맞아 올해 최고의 선수와 감독의 랭킹을 정하는 'FC 100'을 발표했다"라며 "감독과 함께 선수들도 골키퍼부터 스트라이커까지 포지션별로 톱10을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손흥민은 2020년을 빛낸 포워드 톱10에서 7위에 랭크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선정에서는 잉여 부문 5위에 뽑힌 바 있어 2년 연속 'ESPN 선정 FC100'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ESPN은 손흥민에 대해 "올해 조제 모리뉴 감독의 지휘 아래 성장한 선수를 한 명 뽑는다면 단연 손흥민"이라며 "지난해 모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손흥민과 그의 공격 파트너 해리 케인은 막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손흥민이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하지 않으면, 케인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 두 번째 주에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4골을 터트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번리전에서 상대 팀 선수 6명을 따돌리는 득점으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이 득점으로 푸슈카시상 후보에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ESPN은 올해 손흥민의 최고 성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월의 선수로 뽑힌 것을 꼽았다. 토트넘 선수가 EPL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것은 2018년 8월 루카스 모라 이후 2년 2개월 만이었다.

포워드 부문 1위는 2년 연속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게 돌아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지난해 2위였다가 킬리안 음바페(PSG)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해리 케인은 스트라이커 부문 4위에 랭크됐다. 케인은 지난해 스트라이커 부문 2위였다.

스트라이커 부문 1위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포켓-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득점왕 트레블'을 달성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2020년 최고의 감독으로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독일)이 뽑혔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상주 온로버치에서 열린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신진서 vs 박정환 바둑 슈퍼매치'에서 대국하는 신진서(오른쪽)와 박정환. /연합뉴스

한국바둑 '신진서 시대'

'남해 슈퍼매치' 7번기서 박정환 7-0 완파...명실공히 1인자 등극

지난 2일 막을 내린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신진서 vs 박정환 슈퍼매치'는 한국 바둑계의 왕좌가 종전 박정환(27)에게서 신진서(20)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대목이었다.

지난해부터 박정환과 1인자 경쟁을 벌인 신진서는 올 1월 바둑랭킹 1위에 오른 뒤 줄곧 맨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바둑계에서는 신진서가 박정환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했다며 '1인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주저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진서는 지난해까지 박정환과 상대 전적에서 4승 15패로 크게 뒤졌다.

신진서는 지난해 제2기 용성전 결승전과 바둑 TV배 마스터스 결승 등에서도 박정환에게 완패를 당하며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둘의 관계가 180도로 달라졌다. 신진서는 올 2월 LG배 결승에서 박정환을 2-0으로 물리치고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컵을 차지한 데 이어 쏘팔 코사를 최고기사결정전에서도 박정환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또 제3기 용성전 결승에서도 박정환을 완파하고 전년도 패배를 설욕한 신진서는 '남해 슈퍼매치' 7번기에서 박정환을 무려 7-0으로 대파하고 명실공히 1인자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사실 '남해 슈퍼매치'를 앞두고 대다수 바둑인은 누가 이겨도 4승 3패, 혹은 5승 2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회 결과는 신진서의 일방적인 완승이었다.

신진서는 슈퍼매치를 포함한 최근 박정환을 상대로 12연승을 달리는 등 올해에만 14승 1패를 기록, 통산 전적마저 18승 16패로 역전시켰다.

이 정도면 박정환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진서는 올해 성적이 65승 7패로 승률이 무려 90.28%에 이른다.

전무후무한 시즌 승률 90%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바둑을 정복한 신진서에게 이제 남은 목표는 중국 바둑의 1인자 커제 9단이다.

박정환이 커제를 상대로 13승 13패로 호각세이지만 신진서는 3승 10패로 아직 열세를 보인다.

지난달 삼성화재배 결승에서는 '마우스 실수'까지 나오며 0-2로 패했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신진서가 이제 기량면에서는 커제에 전혀 뒤질 것이 없다"라며 "한, 두 번 이기면서 자신감만 붙는다면 머지않아 박정환처럼 커제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유러피언 골프투어에

48인치 드라이버 등장 "성공적"

브라이슨 디섐보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이 사용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된 '48인치 드라이버'가 유러피언투어에 등장했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켈럼 신킨(잉글랜드)은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골프 인 두바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치고 공동 28위에 올랐다.

눈에 띄는 것은 비거리였다. 신킨은 티샷 평균 비거리 328.5야드를 기록, 이 부문 2위를 차지했다.

48인치 드라이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장타자 디섐보가 사용하려고 시험 중이나 아직 실전에서 들고나온 적이 없는 드라이버이다. /연합뉴스

장영달 전 국회의원,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명예총장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육의 100년을 열어야 한다. 체육인들이 앞장서고,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며 출마를 발표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장 명예총장은 14~17대 국회의원(전주 완산구)을 지내며 국회 국방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다.

2005~2008년 대한배구협회장으로 일한 것을 비롯해 생활체육 전국배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체육계와도 인연이 있다.



그는 "한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 추진과제였던 체육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까닭은 현재의 대한체육회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체육계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스포츠가 국민 모두의 것으로 사랑받고 다시 존중받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이웃사촌
4관	이웃사촌
5관	더 프롬
6관	도굴
9관	프리카기 데스데이
7관 씨네커를	더 프롬,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프리시네스 에마: 마법 책의 비밀
8관 씨네커를	도굴, 진첫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